

책으로 이끄는 레저스포츠의 세계

패러글라이딩·윈드서핑 등 각종 안내서 잇따라

본격 레저철을 맞아 서점가에도 갖가지 레포츠 교본들이 건장한 얼굴을 내밀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서바이벌 게임 같은 이색 레포츠의 동호인들이 주축이 돼 발간하는 핸드북 형식의 책자들이 서점가에 본격 상륙,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즐기는 이색 레포츠의 묘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초보자 중심의 안내서 활발

90년대 이후 활성화하고 있는 이색 레포츠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들 안내서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각 레포츠의 특징, 장비 등을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

바람을 느끼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패러글라이딩은 하늘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 현재 공군사관학교 교수인 이수열씨가 쓴 《패러글라이딩의 완성》(문경출판사)은 패러글라이딩의 역사·원리·장비·규칙·경기방식·주의할 점 등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스포츠는 1·2차 세계대전 때 군사목적으로 지상 또는 수상에서 견인하여 띄우던 낙하산이 모태가 됐다. 이 스포츠를 신나게 즐기려면 우선 장비를 잘 챙겨야 한다. 날개부분에 해당하는 '캐노피'와 그것을 연결하는 '하네스'가 가장 중요한 장비이다. 저자는 하네스를 고를 때 박음질이 W형이나 박스형으로 봉제된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정감이 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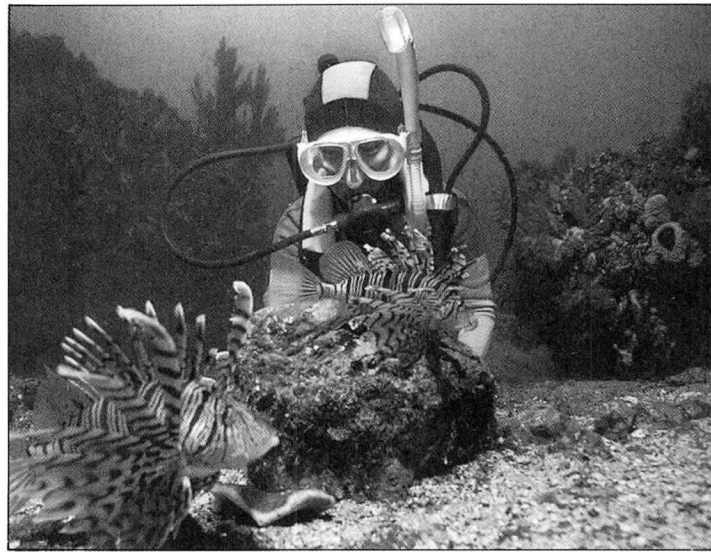
저자는 "이 스포츠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접한다"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요령들도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의 묘미는 누가 뭐래도 고난도 비행에 있다. 바람이 없는 상태의 100미터 높이에서 뛰어 날으면 400~700미터 정도 날아간다. 이때 상승기류를 적절히 이용하면 장시간 떠 있거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상스포츠를 위한 가이드 많아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로는 윈드서핑과 스킨스쿠버가 대표적이다.

윈드서핑은 보드(판자)만으로 파도를 타던 '서핑'에 마스트(돛대)를 달고 세일(돛)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수상 스포츠. 《파워 윈드서핑》(정향동 감수, 삼호미디어)을 읽어보면 이 스포츠의 장비가 간단하고 운반이 편리하며 조작 또한 간편해 누



신세대에게 인기높은 이색 레포츠 안내서들이 독자들을 유혹하는 계절이다. 사진은 스쿠버다이빙과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모습.

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장비는 보드, 세일, 마스트 풋, 생명줄, 라이프 자켓, 짧은 반바지와 티셔츠 또는 수영복, 하네스 등이며 강, 호수, 바다 등 물과 바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대표적인 장소는 한강인데 잠실대교 및 광나루 지구에 동호인 클럽 중 3분의 2 이상이 몰려 있어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윈드서핑의 묘미는 스피드와 파도타기와 크로스 컨트리이다. 파도타기야말로 윈드서핑의 절정인데, 베테랑급 동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본테크닉을 제대로 익혀야 강풍으로 일렁이는 파도를 타고 날아가거나 360도 회전 등의 짜릿한 곡예 세일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킨스쿠버는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꿈을 실현시켰다. 바다는 신비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예측불허의 장소이기도 해서 스킨스쿠버를 즐기려면 반드시 안전을 위해 잠수방법과 장비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본》(서림편집부 편) 《파워 스쿠버다이빙》(김광희 감수, 삼호미디어) 《알기 쉬운 스킨스쿠버》(정의욱·김종학 편, 케이출판사) 《스킨스쿠버》(황건일 지음, 오성출판사) 등에 써어진 것처럼, 이 스포츠를 하기 전에 스쿠버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잠수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요구된다. 선 자세에서 다리만으로 3분 정도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발지느러미 없이 약 275미터 이상 헤엄칠 것, 발지느러미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37미터 정도까지 끌고 헤엄칠 수 있을 것, 기



구없이 15분 정도 떠 있을 것, 발지느러미 없이 14미터 잠수해서 헤엄치되 수영장의 벽을 차지 말 것 등이다. 이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다.

반드시 코까지 들어가는 물안경, 헤엄능력을 10배로 늘려주는 물갈퀴, 가늘고 길면서 물빠짐이 좋은 스노쿨 한세트, 고압으로 압축된 호흡탱크인 레귤레이터, 부력 조절기이자 긴급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BC자켓, 잠수복, 겨울철에 발을 보호하는 다이빙용 부츠 등이 필요하다. 잠수 수준이 베테랑급이 되면 해저 15~30미터까지 내려가 해저산책이나 물고기 관찰, 수중사진과 비디오 촬영 등을 즐길 수 있다.

한국잠수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서 튜만 나면 스킨스쿠버를 즐긴다는 김학민씨(35)는 적정 장소로 "급경사가 있고 바위나 계곡이 골고루 분포돼 수중경치와 어족이 풍부한 곳이 가장 좋다"며 주문진 일대와 흑산도, 추자도 등을 천거한다. 제주도도 말할 것도 없이 스킨스쿠버의 메카이다.

신세대들에게 인기높은 서바이벌 게임

서바이벌 게임은 최근들어 신세대들의 관심을 부쩍 사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 핸드북》(HOBBIST 편집부 편)은 이 게임이 2차대전 때 미국에서 성행한 '워 게임'부터 시작됐음을 전한다. 야산에서 총기를 이용해 벌이는 모의전투인데 성인용 전쟁놀이와 마찬가지로. 1992년 기업체 사원 연수를 맡은 레저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

입, 그후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사용하는 총알은 스톱페이트볼이다. 약용 캡슐 속에 물감을 넣은 총알인데 저격한 부위가 물감으로 선명하게 물들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 전에는 플라스틱 구슬로 된 비비탄을 사용하는 바람에 총에 맞고도 안맞았다고 우기는 '오리발족'이 많았다고 한다. 총 이외에도 안면마스크와 고글, 조끼 등이 필요하다.

게임 방법은 여러가지. 상대팀의 깃발을 탈취해오는 깃발탈취전, 상대팀 고지를 점령하는 고지점령전, 10~30미터 둘레 안에서 전투하는 링게임, 모두 죽이고 혼자만 사는 람보전, 이밖에 위생병전, 부비트랩전, 좀비전, 귀순자 게임 등이 있다.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일대의 야산에 전용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는데 신세대라 불리는 2, 30대 남자들이 주말이면 일제히 모여들고 있다고 전한다.

레저업체 '동화엔담'의 한 관계자는 이 게임이 "사원들의 협동심과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적당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측면도 크다"고 설명한다. 최근 서바이벌 게임 전문 잡지인 《플래툰》이 출간될 정도로 그 인기가 높다.

패러글라이딩,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서바이벌 게임 외에 여러가지 레포츠를 간략하게 소개한 가이드북들도 출간되고 있다. 《레포츠 가이드》(김효윤 지음, 오성출판사) 《내게 맞는 스포츠 제대로 즐기는 법》(김중 지음, 일터와사람) 《신나는 레포츠 이렇게 즐기자》(김경옥 외 지음, 해난터) 등이 그것이다.

—배은희 기자